

중국문화원 '공자학원'의 설립과 중국문화의 세계화 전략*

차미경**

<목 차>

1. 들어가면서
2. 글로벌리즘과 중국문화원 공자학원의 설립과 보급
3. 중국의 새로운 정체성 모색—공자숭배의 복원추세를 중심으로
4.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최근 가장 주목되는 세계사적 현상으로 무엇보다도 '글로벌화' 추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말의 '교통혁명'을 시발로 급속히 진행된 각국 간의 접촉과 교류는, 20세기말 이데올로기의 경쟁적 상황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패턴으로 전개되었다. 경제통합의 급진전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요구되고 정보통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류전체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면적이 크게 늘어났다. 비단 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문명의 전 방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 간의 거리가 더욱 좁혀진 것이다.

물론 글로벌화는 유럽과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까닭에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서구적인 가치가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각 문명권과 국가마다 장기적으로 침전되듯 형성된 역사적 경험과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6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있기 때문에, 인류문명은 전반적인 글로벌화의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그 개별적 특성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지역으로,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고유의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사회적인 시스템과 신앙, 가치 등을 유지해왔다. 세계의 여타지역과 대별되는 뚜렷한 특징으로 인해 ‘유교문화권’¹⁾이라는 호칭에 보이듯이 개별적인 문화단위로 취급되어 왔다.

그렇다면 글로벌화라는 세계사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장기적으로 형성된 동아시아적 특색은 어떻게 발현되고 있을까? 과거 동아시아 문명의 기반을 형성했고, 개혁개방을 표방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과감히 수용하여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이러한 글로벌화의 대추세속에서 자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까? 또한 이런 글로벌화의 추세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중국문화원 ‘공자학원’의 설립과 보급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글로벌리즘과 중국문화원 공자학원의 설립과 보급

1980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래 ‘죽의장막’으로 일컬어지던 폐쇄적인 중국은 단기일 내에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당당히 복귀했다. 동남연안의 광둥과 복건 의 네 도시에서 시작된 시장경제의 실험은 주위의 우려를 일축하고 대성공을 거두었고, 자본주의의 물결이 연해에서 내륙각지로 급속히 확산

1) 20세기 동방 문화는 환태평양 분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 하나의 거대한 환태평양 O자형 한자 문명권을 형성하였는데, 이를 ‘한자 문화권’ 또는 ‘유교 문화권’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중국 문화 영향권’이라 부른다. 최원식·백영서 역음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년, 190쪽.

되었다. 지난 20년간 연10%전후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²⁾. 특히 2002년 말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발전경로가 전지구적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모색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처럼 개혁개방을 통해 글로벌화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중국은 경제적인 성공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점차 강화되었다.

중국정부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루어낸 경제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있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핵 다자협상의 핵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각국과 적극적으로 FTA체결을 추진하는 등 정치, 외교, 경제방면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문화외교에도 적극 나서는 등 강대국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고, 특히 문화적인 영역에서 '중화문화권'을 결집시켜 세계화의 질서 속에서 '아시아의 미국'을 구상하고 있다.

이점은 중국문화의 세계화 전략에 있어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국문화원 '공자학원'의 설립과 적극적인 보급을 들 수 있다. 중국정부는 세계화 물결 속에 중국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적 문화요소를 통해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중국정부가 세계 전역에 세우고 있는 중국문화원 '공자학원'이다. 중국 춘추시대 천하 각국을 돌면서 학문을 가르치던 공자가 2500년이 지난 오늘날 '공자학원'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에 전파시키기 위해 중국전통문화로 대변되는 공자와 같은 '상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의 세르반테스문화원, 독일의 괴테인스티튜트처럼 중국의 간관스타인 춘추시대 노나라 사상가 공자의 이름을 빌려 중국문화원을 '공자학원'이라 명명하

2) 세계는 2050년 중국이 브릭스(BRICs—브라질B, 러시아R, 인도I, 중국C)의 핵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중국과학원은 중국이 2020년에 현대화 1단계를 종료하고 2050년에는 세계 10위권 국가로 진입하며, 2080년에는 미국에 필적할 현대화 국가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 중국어와 중국 문화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³⁾. 2004년 12월 한국을 시작으로 2007년 6월 1일 현재까지 전 세계 54개국 156곳에 공자학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또한 중국정부는 2010년까지 500개의 공자학원 설립을 목표로 중국어를 세계 2대 언어로 만들겠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⁴⁾.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중국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영국문화원, 프랑스문화원, 독일문화원처럼 중국문화원인 ‘공자학원’을 세계 구석구석에 설립하여 현지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자국문화, 정치이념, 정책을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중파(親中派)를 배양하려 하고 있다. 기실 이런 기본적인 설립 목적이 표면상으로는 주된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중화사상의 모태인 유가사상을 외국에 전파함으로써 중화시대의 초석을 놓아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형성해 국제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깊숙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국의 새로운 정체성 모색 —공자숭배의 복원추세를 중심으로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정부는 세계화의 대추세 속에서 자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중국의 전통문화 즉 유교문화를 대변하는 공자를 간판스타로 내세워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을 설립하여 중국의 수천년간 축적되어온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3)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사의 이름으로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러시아의 푸쉬킨 인스티튜트,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인스티튜트,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인스티튜트 등이 있다.

4) 국가중국어사무실주임 쉬린(許琳)은 156곳의 공자학원과 교실은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 52곳, 아프리카 11곳, 유럽 55곳, 아메리카 34곳, 오세아니아 4곳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 205개 기구가 추가로 설립허가 신청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이며, 신청허가를 받은 공자학원의 2/3가 이미 정식으로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1/3은 연말까지 학생을 모집해 개강할 예정이다. 공자학원의 열풍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어 학습에 대한 열망 역시 해외에서 계속 인기를 누리고 있다. 『新華網』, 2007년 6월 20일 보도.

전파하고 있다.

존 베일리스와 스티브 스미스에 의하면 “세계화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거리감이 없어지고 국경의 중요성이 미약해져 전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⁵⁾. 이처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세계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민족간 · 인종간 문화적 동질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민족적 · 인종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대두되었다⁶⁾. 특히 경제발전으로 힘을 받은 중국은 90년대 들어서면서 불어닥친 세계화의 거센 바람에 중국인들은 단순한 문화적 충격을 넘어 중국문화 전반에 걸쳐 이런 세계화 속에서 과연 ‘중국’의 정체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동시에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세계화 물결 속에 중국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적 문화요소를 통해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공자이다. 중국 현대화 과정에서 중국 사회의 주류전통 문화인 유가문화의 대표주자 공자는 버려져야 했고, 또 처참히 버려졌던 그가 이제 21세기에 다시 그의 ‘공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교육문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정부는 왜 ‘공자’를 다시 선택했는가? 중국의 새로운 정체성 모색에 있어 공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공자 숭배의 복원 추세를 중심으로 중국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자의 화려한 부활

공자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수용되고 재해석되는

5) 김우상 『세계화와 인간안보』, 집문당, 2005, 13쪽.

6) 세계화는 초국경적 현상인 것으로,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시장의 통합수준이 심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금융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 정보통신수단의 발달은 금융의 세계화뿐 아니라 문화의 세계화를 부추기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구촌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족간 인종간 문화적 동질성이 증대될 수도 있는 반면 민족적 인종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목격하게 된다. 김우상 『세계화와 인간안보』, 집문당, 2005, 14-15쪽.

과정을 겪어왔다. 특히 20세기 중국사에 있어서 공자는 극복의 대상으로, 때로는 포용과 활용의 대상으로 극단적인 평가를 받으며 격동의 시대를 보냈다⁷⁾. 1910년 5·4신문화운동 당시 도적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친 인물로 전락해 이름조차 ‘도둑놈 공자’인 ‘盜丘’로 바꾸었던 공자는 1930년대 중후반 국민당정부에 의해 민족과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활용되면서 공자탄신일 제정 등의 조치와 함께 복권됐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기간에 공자는 ‘도둑놈 공자’에서 ‘천하의 똥쓸 놈’으로 한 단계 더 추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제왕조의 봉건적 문화의 잔재로서 비판과 파괴의 주요대상이 되어 어린 홍위병들에 의해 山東省 曲阜市 공묘 대성전에 있는 공자상이 파괴되는 수모를 당했다.

이처럼 중국의 근대화와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굴곡을 겪었던 공자가 21세기 벽두에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공자 탄생 2555주년을 맞아 중국 관방이 주최하는 최초의 기념제와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는가 하면, 베이징에서는 ‘공자문화의 달’ [孔子文化月] 행사가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⁸⁾. 뿐만 아니라 공자와 유교선현을 제사하는 문묘를 전국적으로 개수하고⁹⁾, 공자탄신일 행사를 전국적으로 중계하며 전통중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공자 탄생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등 적극적인

7) 공자로 상징되는 유교적 질서나 그 가치는 때로는 극복, 배제의 대상으로 때로는 포용, 활용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쟁점이 되어 왔다. 변법운동기 강유위의 공교제창과 그 연장선에 있었던 민국 초기 공교의 국교화 논쟁, 원세개의 제제운동, 신문화운동기의 반전통운동, 남경국민정부의 존공정책 등의 중심에는 예외없이 공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공자는 사회주의 중국의 건설과 관련하여 비림비공운동, 문화열 논쟁,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등에서 어김없이 비판의 대상이자 활용의 대상으로 주목되어 왔다. 이 일련의 사실을 통해 중국의 국가건설 모색에서 공자로 상징되는 유교적 전통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를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8) “從祭孔大典看復興傳統文化”, 『齊魯晚報』, 2004년 10월 10일.

9) 문묘는 석전이라는 공자에 대한 국가제사와 유교 강학이라는 교육적 기능이 결합된 전통시기 존공을 체현하고 상징하는 제도였다. 전통시기 황제권력은 중앙과 지방의 문묘를 통해 통치이념인 유학의 도통을 제도화하고 그럼으로써 치통의 근거까지 확보하려 했다. 요컨대 문묘는 전통시기 황제지배체제를 특징짓는 정교일체내지는 치교합일을 상징하는 제도였으며, 그 중심에는 공자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上海 문묘나 嘉興縣 孔廟 등 공자사당들은 90년대 전만 해도 책파는 곳(書市)나 공원 등의 용도로 활용되면서 매우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모두 개수, 보수가 이루어져 당시의 초라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정문상 「민국기 상해 문묘의 기능변화와 공자」, 『중국사연구』 제32집, 236-263쪽 참조.

유교부활 운동과 전통문화 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정권 탄생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¹⁰⁾.

2) 공자부활의 의미와 배경

유가로 상징되는 공자에 대한 전통의 긍정적 가치관심이 증폭하고 공자가 부활하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의 약화로 인해 새로운 중국적 이데올로기를 갈망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런 경제발전은 국내적으로는 현 체제의 정당성과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대외적으로는 부국강병을 통해 세계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야심의 표출로 작용했다. 따라서 경제발전은 중국의 핵심적인 목표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통한 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경제적인 성공은 다방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내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¹¹⁾.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자본주의 사회에 나타나는 계층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가이데올로기로써 사회주의 역할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의 채택과 더불어 소련의 해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이 이어짐으로써, 과거 사회통합의 중심점이 되었던 사

10) “從祭孔大典看復興傳統文化”, 『齊魯晚報』, 2004년 10월 10일.

11) 경제적 성장은 모든 인민들에게 동등한 부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효율중심의 자본주의 논리는 더욱 더 많은 사람을 낙오자로 만들고 있다. 정치적 개혁 또한 일정 정도 인민들이 가지 권리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제한된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통재능력의 부재가 가져오는 두려움에서 야기된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 위기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통제의 이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념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더 많은 사유공간과 자유로움을 부여해 주게 되었으며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전성홍 편, 『전환기의 중국사회』, 오름, 2004.

회주의의 이념적 기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새로운 중국적 이데올로기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경제적 발전을 지속시켜 나아감과 동시에 사회를 통합하고 안정시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중국적인 이데올로기를 유가사상의 중심인 공자로부터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1990년 이후 중국 정부는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긍정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통문화 부흥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¹²⁾. 이러한 현상은 2002년 16차 당대회 이후 특히 두드러진 특징으로, 문화를 '종합 국력' 증진을 위한 핵심이자, "사회주의 선진 문화 건설은 반드시 중화민족 5천년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바탕을 두어야 한다"¹³⁾고 인식하는 가운데 '중화 민족정신의 상징'인 중국의 전통문화는 '전국 인민을 단결시키는 접착제이자 중화 각 민족을 하나로 묶는 고리'라고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전통문화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¹⁴⁾.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 20세기 들어서 줄곧 비판의 대상이었던 공자가 화려한 부활을 하면서 공자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 가운데에는 공산당과 중국정부가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전통문화를 통한 애국주의, 민족주의에 호소하여 사회통합을 시도하고 있다¹⁵⁾. 1994년에 '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12) 이옥연은 「개혁개방 이후 전통문화의 재평가와 변용」에서 1990년대 이후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전통의 긍정적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배경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중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초조감의 완화와 민족적 자신감의 회복이다. 둘째, 서구 현대화에 대한 인식 심화와 1980년대에 유행한 전면적 서구화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다. 셋째, 민족주의의 확산과 문화보수주의의 등장이다. 넷째,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지구화 시대 중국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점이다. 다섯째, 중공당과 중국정부가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통문화 부흥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다. 이옥연 「개혁개방 이후 전통문화의 재평가와 변용」, 『새로운 중국의 모색』, 95-99쪽 참조.

13) 전국 정협 주석 지아칭린(賈慶林)의 발언, "孔子思想在中國重新受重視", 『新華網』, 2004년 10월 11일.

14) 이옥연 「개혁개방 이후 전통문화의 재평가와 변용」, 『새로운 중국의 모색』, 99쪽 참조.

15) 90년대 중국 민족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관주도 민족주의 또는 국가민족주의이다. 애국주의로 표현되면서 중국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민족주의는 바로 민족과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공산당까지도 동일시하면서 이들 모두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주요내

국가주도의 애국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¹⁶⁾. 강요에 나타난 애국주의 운동은 크게 세분야로 집약될 수 있고 그 중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바로 중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부흥이라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심각한 국내외적인 체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대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권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를 통합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충'이라는 사상으로 한때부터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어 온 중국의 가장 전통적인 사상인 유가를 주류사상으로 부각시켜 국민적 통합의 정신적 기반으로 활용하는 한편, 급속한 서구식 현대화 과정 속에서 야기된 이념적 충격을 완화하여 사회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려 한다. 이들은 개인적인 '실리'보다는 국가적인 '애국심'을 고양하여 국민들에게 감정적 민족주의에 호소하여 지속적으로 무너지가고 있는 이념을 권위로 막아보고 국론을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민족주의는 감성적, 충동적 민족주의라기보다는 이성적이고

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96년 국경일 인민일보 사설의 "애국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에서 모든 민족이 선택한 사회주의 체제와 노선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즉 현 중국지도부는 애국주의의 고양을 통해 당과 국가를 일체화하여 당에 대한 비판을 비애국적인 행위로 만들고 있다. 이동을 「중국 민족주의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41집3호, 269쪽 참조.

16) 중국정부는 1994년에 '애국주의교육실시강요(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애국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강요에 나타난 애국주의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분야로 집약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부흥이다. 유학이라는 주류사상을 부각시켜 국민적 통합의 정신적 기반으로 활용하는 한편, 급속한 서구식 현대화 과정 속에서 야기된 이념적 충격을 완화하여 사회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둘째, 공산당 정권의 업적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다. 반식민지의 중국에서 혁명을 성공한 업적과 더불어 지난 20여년의 개혁 개방의 성과를 과시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을 강화하고, 셋째,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국가와 민족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애국주의의 재구조 분위기는 1991년 9월 『中國青年報』에 이른바 태자당(太子黨)이라고 불리는 신세대 정치지도자 그룹에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소련 격변 후의 중국의 현실적 대응방안과 전략적 선택(蘇聯巨變之後中國的現實應對與戰略選擇)'이라는 글에서 시작되었다. 이 글의 주 내용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더 이상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문화나 민족주의를 선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을 「중국 민족주의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41집3호, 261쪽 참조.

계산된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¹⁷⁾.

넷째,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세계화 시대에 중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왕시양펑(王向峰)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경제의 세계화와 함께 급속도로 중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화세계화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문화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중국적인 전통문화에 대해 더욱 연구하고 중국적인 문화를 개발하여 그것으로 문화세계화의 무대에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¹⁸⁾. 이런 전반적인 추세에 의해 중국정부는 중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전역에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중국문화원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바로 중국 전통문화의 상징인 공자를 내세워 중국정부가 세계 각지에 세우고 있는 문화원의 이름이 공자학원이다. 공자는 민간에서의 복고 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에서 완전 복권하여 중국의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 가며 세계 속의 중국 문화를 선양하는데 있다.

3) 공자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

한 국가가 정권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공통의 사회를 통합하고 공통의 생활규범 및 이념, 문화적 기반을 지탱할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¹⁹⁾.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자체의 논리성과 해석력이 있어야 국민에 대한 설득이 가능하다.

17)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보편적이며 역사성을 지닌 애국주의라는 이름하에 사실상의 관주도의 국가 민족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경제발전, 정치안정, 민족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체인 공산당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18) 왕시양펑(王向峰) 「文化全球化與民族化」, 『全球化語境與民族文化·文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年.

19) 한 사회가 지속적 발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은 공통된 가치관, 효율적인 제도와 조직 그리고 이념, 문화적 정체성이다. 내재된 정체성의 기제를 통해 행위를 제어하고 사회 내 상호신뢰를 만들어내며 상이한 사회집단과 구성원이 서로 소통하고 협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합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역사전통에서 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 이제까지 중국은 부강한 민족국가를 건립하기 위하여 서양 현대사회의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중국 사회와 전통에 대해 비판하고 부정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하지 못했고 반면에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1990년 이후 중국인들은 현재 중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화적 위기와 도덕적 위기는 중국전통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을 상실함으로써 이런 문화적 도덕적 위기가 생겨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중국정부는 현실적 돌파를 위한 출로로 유가사상으로 대변되는 공자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전에도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공자를 통해 극복한 사례가 있으며²¹⁾, 이로 전통사상으로 상징되는 공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유가적 전통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유가의 전통문화 가운데 유가전통이 발현될 수 있는 사상적 원천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윤휘탁은 「중국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과 유가적 전통문화」에서 '사회주의 도덕' 수립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²²⁾. 첫째, 인, 예, 극기 복례 등 '仁'학을 핵심으로 하는 공자의 인도주의 사상 혹은 '德'사상이 거론되고 있다. 둘째는 유가의 '見利思義', '義然後取', '舍身取義', '不發不義之財'의 '義利觀'과 '以理節欲'의 정신이 거론되고 있다. 셋째는 유가가 제창한 '殺身成仁', '君子義以爲上', '捨生取義',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堅忍不拔', '自強不息'의 애국정신과 '民爲邦本', '民視民聽', '民貴君輕' 등의 민본사상이 거론되고 있다. 넷째는 '尊師重道', '敬老愛幼', '尊老敬賢', '助人爲樂', '儉朴', 忠 · 孝 · 誠 · 信 · 仁 · 愛 · 禮 · 義 · 廉 · 恥 등 전통적인 미덕이 거론되고 있다. 다섯째는 변증법적 사유방식과 관련하여 유가가 제기한 '中庸之道'가 거론되고 있다. 위에서

20) 김도희 편 『새로운 중국의 모색Ⅱ』, 폴리테이아, 2005년, 17쪽 참조.

21) 국가가 공자를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활용한 예가 있다. 장개석 정부가 1934년 공자탄신일을 기념일로 만들고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공자를 이용한 것이다.

22) 윤휘탁 「중국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과 유가적 전통문화」, 『중국현대사연구』 제10집, 106-109쪽 참조.

볼 수 있듯이 유가적 전통문화를 통해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여 중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²³⁾.

4. 나오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서투른 출발에서 시작하여 속도전을 치루고 이제 한걸음 멈추어 서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을 위해 중국의 정통적인 유가사상을 대변하는 공자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문화정책은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한류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한국문화가 중국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우리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보야 할 것이다.

21세기 벽두에 공자는 전 세계를 향하여 화려한 부활을 했다. 그러나 바야흐로 불이 붙은 21세기형 ‘공자’가 현실적 위기를 돌파하는 출구로 그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다면 공자는 여지없이 언젠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임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23) '21세기 중국인'은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堅忍不拔 · 殺身成仁적인 애국심, 仁學 · 民爲邦本적인 인본주의 사상, 敬老愛幼 · 尊老敬賢 · 忠恕之道적인 예의범절, 義然後取 · 先義後利 · 見利思義 · 以利節欲 · 捨生取義 · 天下爲公적인 사회주의 義利觀, 克己爲公 · 大公無私 · 先公後私적인 집체주의 정신 등에 입각해서, 인간애를 바탕으로 남을 배려하고 인만에게 봉사하며, 개인의 주관적인 욕망을 극복해서 국가와 집체의 공익을 개인의 사익보다 앞세우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며, 원대한 이상과 고상한 품격을 세워 개인주의 · 배금주의 · 향락주의 · 이기주의 · 관료주의 · 부정부패 등을 극복하여 공정함과 청렴함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 공공질서의 준수, 공공 재물 및 자연환경의 애호 등의 사회 공공도덕과 성실 · 신의 등의 직업 윤리 도덕, 그리고 경노애유, 남녀평등, 부부화목, 근검절약 등의 가정 미덕을 창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윤희탁, 「중국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과 유가적 전통문화」, 『중국현대사연구』 제10집, 117쪽.

〈參考文獻〉

- 黃宗智 主編 『中國研究的範式問題討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 Ye, Zicheng, 이우재 옮김, 『중국의 세계전략』, 북21, 2005
- Shan, Xiufa 『(등소평과)21세기 중국의 전략』, 유스북, 2005
- Kristof, Nicholas D. 『중국이 미국된다』, 따뜻한손, 2005
- Hu, Zhaoliang 『중국의 문화 지리를 읽는다』, 휴머니스트, 2005
- 추이 즈위안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창비, 2003
- 장수현 『중국은 왜 한류를 수용하나: 한류의 중국적 토대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 學古房, 2004
- 김충열 『孔子思想과 21세기: 韓 中國제 학술회의 대논문집』, 동아일보사, 1994
- 정덕구 『거대 중국과의 대화』, 삼성경제연구소, 2004.
- 피터 L.버거 김한영 옮김, 『진화하는 세계화(현대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 아이필드
-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 비평사, 2000
- 한국철학사사연구회 『현대중국의 모색』, 동녘, 1992
- 고병익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문학과 지성사, 1996
- 김익수 『현대중국의 이해』, 나남출판, 2005
- 이희옥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창비, 2004
- 손병해 외 『유교문화와 동아시아 경제』,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 전인갑 외 『공자 현대 중국을 가로지르다』, 새물결, 2006
- 김도희 편 『새로운 중국의 모색II』, 폴리테이아, 2005
- 이옥연 「중국 지식인의 인식변화: 80년대와 90년대」, 『역사비평』 봄호, 1997
- 이동률 「중국 민족주의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41집3호, 2001
- 윤휘탁 「중국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과 유가적 전통문화」, 『중국현대사연구』 제10집

《中文提要》

最近最令世人矚目的現象，大概莫過於‘全球化’趨勢。以十九世紀末‘交通革命’為契機迅速開展起來的世界各國間的接觸與交流，隨著二十世紀末意識競爭態勢的終了，以新的模式展現在世人的面前。隨著經濟合作的擴大，制定國際標準成為必然。信息技術的飛速發展，又使人類在政治、社會、文化等諸多領域可共享的空間大大增加了。這樣，不僅僅在經濟領域，在人類文明的各個方面國與國之間的距離更短了。

當然，由於全球化是由歐美主導並向全世界擴散的，因此資本主義經濟體制與價值體系占主要內容。但是，由於每個文明圈和國家在長期的發展過程中，形成了其特有的歷史經驗和地域特點，因此人類文明在全球化的總的趨勢下，仍然以其特有的規律發展著，並由此展現出各自不同的個性特點。其中，東亞是擁有悠久的歷史傳統的地區，直至十九世紀中葉還保持着固有的政治體制、治國理念、社會制度、信仰以及價值體系。由於其明顯地有別於其他地區，正如儒教文化圈這一稱呼所言，它歷來被視為一個個別的文化圈。

那麼，在全球化的這樣一個大的趨勢下，長期以來形成的東亞文明的特色是如何得以發揚光大的呢？過去奠定了東亞文明的基礎，現在高舉改革開放的旗幟，大膽引進資本主義市場經濟，並正向世界強國的行列邁進的中國，在這種全球化的趨勢下，為了將本國的文明推向世界，正在摸索什麼樣的方案呢？還有，在全球化的這樣一個大的趨勢下，中國是如何建設有自己特色的中國的呢？在這個過程中，這個民族所特有的那些因素是如何發揮作用的呢？本研究擬從最近中國政府批准成立中國文化院孔子學院來考察上面提出的若干問題。

關鍵詞：全球化，中國文化院，孔子學院，儒教文化圈，東亞世亞文明